第2外國語 교육의 偏重現狀을 우려하며

朴 哲
(韓國外大 西班牙語科)

하나의 外國語를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얻는 것과 같아서 젊은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지식과 희망을 심어준다. 오늘날 西班牙語(스페인어)는 英語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國語로 使用되고 있는 말로서 外國語 교육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국제화 시대에 매우 긴요한 언어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西班牙語는 스페인과 중남미 20여개국의 모국어이며, 미국의 전 지역,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필리핀 등지에서까지 통용되는 중요한 언어이다.

언어는 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의 소산인 만큼 外國語라는 무기가 없이 이러한 나라들에 접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西班牙語科가 처음으로 신설된 지도 벌써 30여년이 넘었으며, 韓國外國語大를 비롯해서 전국 10여개 大學에 學科가 개설되어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외에 몇몇 大學에서도 비록 學科는 없더라도 독어나 불어와 함께 西班牙語를 제2외국어 科目으로 개설하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외국어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고등학교에서도 西班牙語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어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그 중요성에 인식을 더해 갔다. 현재 고등학교에 개설된 제2외국어 과목은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서반아어로 모두 다섯 개이다. 알다시피 '50년대부터 최근년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에서는 타성적으로 독어와 불어만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왔었다. 필자도 고교 시절에 一方的인 狀況에서 독일어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어·중국어·서반아어가 추가되면서 날로 복잡해가는 國際化 時代의 現實的 狀況에 對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가 복수로 설치되지 못함에 따라 선택 기회를 막아버린 채 임의로 선정된 한 가지 외국어를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빌어서 보면, 제2외국어 교육의 경우 독일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363개교, 일본어는 352개교, 불어는 204개교, 중국어는 50여개교, 서반아어는 불과 18개교인데, 그것도 학생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고 학교가 一括的으로 지정한 특정 외국어에 편

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당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고교생 숫자를 비교해 보자면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이 404,500여명, 불어가 260,000여명, 일본어가 565,500여명, 중국어가 28,500 명, 西班牙語가 7,660 여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소개한 숫자는 1990 학년도 新學期를 기준으로 하여 배포 예정인 外國語學習 고등학교 교과서의 배포 예정 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 資料를 통하여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가 認識하지 못한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독일어나 불어를 훨씬 앞질러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語가 최근년에 開設된 점을 생각할 때 現在의 일본어 比重은 飛躍的인 증가를 한 것으로, 학생들이 쉽게 일본어를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들이 일본에 대해 또 다른 文化的 隷屬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바심마저 든다. 이와 비교해 21 세기 未來를 指向하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나 서반아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때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選擇의 機會가 균형있게 골고루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서반아어의 경우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그나마 감소할 지경에 놓여 있다고 교사들이 하소연을 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칼하게도 문교부에서 올해부터 고등학교의 제 2 외국어를 복수로 설치하는 選擇機會 擴大政策을 발표하여서 의무적으로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인데, 서반아어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독어나 불어를 받아 들이는 대신, 독어나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복수 과목으로 서반아어가 新設될 진망이 없다고 하니 외국어 교육의 偏重現狀은 더욱 심화될까 우려된다. 이는 에당초 이러한 試圖가 多變化하는 國際化 時代에 부응하는 必要性에 의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어나 불어를 전공한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苦肉策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善意的으로 볼 때는 문교 행정의 책임 부서에서 전국 고등학교에다가 제 2 외국어를 복수화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方案은 환영하는 바지만, 애꿎게도 그나마 소수에 불과한 西班牙語를 개설한 학교들조차도 다른 외국어(독어나 불어) 과목에게 절반의 자리를 내어 줌으로써 質質的인 消滅을 초래할까 몹시 우려되는 바이다. 필자가 서반아문학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편을 들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제 2 외국어 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急變하는 國際政治 狀況에서 이를 대처하지 못한 체 구태의연한 자세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일 뿐이다. 전국 이러한 제 2 외국어 교육의 偏食性은 고등학교 교육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학교육에서조차도 비슷한 형태로 교양 학점을 메꾸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나마도 고등학교에서처럼 대학에서도 독어나 불어가 제 2 외국어 과목으로 偏重·開設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學科는 없어도 독어와 불어 이외에 서반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外國語 科目을 開設하여 폭 넓은 敎育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한 열의를 찾아 보기 힘들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6·25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미국 文化에 同化되었으며, 日帝 植民地 支配로 인하여 일본어를 부득이 받아 들이면서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일어는 독일이 일본과 동맹국이었던 관계로 한국과도 연관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위에서 언급한 언어와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 왔으며 그러한 범주 밖의 넓은 세계로 시야를 주지도 못한 체 지

내왔던 것이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로만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확실히 무언가에 얽매여서 偏向的인 자세로 지구의 작은 한 부분만을 보고 살아 온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는 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좋은 예로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를 갖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政治·經濟·社會의 狀況은 하루 앞도 豫測할 수 없을 만큼 急變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理念的으로나 政治體制的으로 적대적이며 이질적이었던 동구권의 국가들인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정식 修交關係를 樹立하였고, 소련이나 중국과도 外交 및 經濟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現實로 바뀌었으며, 國際政治의 흐름을 종잡을 수 없는 혼동마저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처럼 언어는 한 국가의 文化와 傳統의 所産인 만큼 외국어라는 무기 없이는 接近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國際化 時代에 한 국가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確信하는 바이다.

韓國外國語大에서는 3년 전 국내에서 최초로 동구권 언어학과들을 개설하여 국제 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이것이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고 앞으로 커다란 役割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동구권 언어학과는 모두 다섯 개인데 헝가리어과,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유고슬라비아어과이다. 올해로 4학년이 되는 학생들 중에 상당 수가 이미 정부나 종합무역상사 등에 就業 保障을 받을 정도로 脚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앞으로 보다 緻密한 政策으로 이러한 교육의 支援과 뒷받침을 요구하게 된다.

오늘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에서 독일어, 불어, 일본어의 偏重 現狀은 외국어 과목 복수개설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지만, 근본적인 방책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현재 적체된 독일어·불어과 출신의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이로 인하여 올해 취업이 된다고 해도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졸업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과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여 필요로 하는 외국어 교육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후회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열심히 닦고 배운 知識을 社會에서 活用함으로써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은 현실성이나 미래성을 무시한 채 惰性的으로 이루어져 왔고, 選擇의 機會가 없이 학교가 一括的으로 지정한 특정 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展望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서도 진학하지 못하는 대입 희망자가 5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만을 위한 편중된 入試 爲主의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敎育 現實은 매우 危機에 처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주도로 전문 언어 학습 기관을 만들어서 반드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직업학교 형태로서 다양한 종류의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스페인이나 불란서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처럼 청소년과 사회인을 망라하여서 다양한 외국어를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는 外國語 學習機關을 문교부에서 운영한다면 21세기를 대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의 면모를 멋지

게 보여주게 되리라 확신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韓國外國語大에 있는 외국어 연수원을 적극 지원해도 좋을 것이며,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정부 주도의 외국어 전문 학습 기관을 신설하여 6~7단계의 과정을 만들어 수료하도록 해도 좋다고 본다. 그리고 각 과정을 완전히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에 相應하는 資格證이나 就業의 機會를 부여한다면, 매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또한 곧 다가올 2000년대를 대비하면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수학하는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效率的인 言語敎育이 實施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유럽이나 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등지를 돌면서 세계 속에 한국을 심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은 독·불·일어 중심의 偏食的 敎育을 止揚하고 세계 25여개국의 언어이며,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看過할 수 없는 서반아어 교육의 補强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